여자아마추어 유망주 우승 경쟁
KB금융그룹배 골프선수권 '티업'
20~22일, 원주시 센추리21CC서



유소연(2007년), 김효주92009년), 고진영(2012년), 지한솔(2013년), 이소미(2016년), 이예원92018년). 바로 KB금융그룹배 여자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 역대 우승자들이다.

한국 여자골프 스타 등용문인 제16회 KB금융그룹배 여자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가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강원도 원주시 센추리21 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 골프의 미래를 책임질 유망주로 꼽히는 아마추어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치열한 우승 경쟁이 예상된다.

2021년 제14회 KB금융그룹배 여자아마추어선수권대회 우승한 국가대표 이정현(컬리짓 아카데미 서울2)이 2년 만에 다시 우승을 노린다.

지난해 대회 우승자 자격으로 KLPGA 메이저 대회 KB금융 스타챔피언십에 출전해 아마추어 1위를 기록한 국가대표 유현조(천안중앙방통고3)와 김민솔(수성방통고2) 오는 9월 중국에서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이번 대회에 출전해 마지막 담금질에 나선다.

정지효(학산여고2), 오수민(비봉중3), 양효진(남녕고1) 등도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회 주최사인 KB금융그룹은 2012년부터 한국 아마추어 골프의 발전을 위해 육성 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3억원의 주니어 골프선수 육성 기금을 대한골프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대회에 출전한 아마추어 선수들이 한층 더 발전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선수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yskim@

국내 골프시장 규모 지난해 21조원 육박

한국골프산업백서 2023 발표

2020년 대비 5조원 늘어
평균 16.2% 증가 상승세

필드시장 5조1200억원
스크린 2조1865억원 기록

파생시장 12조3134억원
용품시장이 10조원 차지





2022년 국내 골프시장 규모가 2020년 대비 5조 8540억원 성장한 20조 6690억원으로 조사됐다. 왼쪽은 한국골프산업백서2022. 오른쪽 사진은 월송리CC 전경. 사진=유원골프재단·월송리CC

2022년 국내 골프시장 규모가 2020년 대비 5조 8540억원 성장한 20조 6690억원으로 조사됐다.

유원골프재단이 국내 골프시장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해 골프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한국골프산업백서 2022'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골프사장 규모는 2020년 대비 5조 8540억원 가량이 성장한 20조 6690억원으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2020~2022년 대비 평균 16.2% 증가를 보이며 팬데믹 이전의 5년 연평균 성장률인 4.9% 대비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백서 발간을 담당한 강준호 서울대 스포츠산업연구센터 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이 소수 인원, 야외 활동이라는 특성을 가진 골프산업의 수요 폭증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2022 골프백서는 전체 골프산업을 스포츠시장가치망 개념에 기반해 크게 '본원시장'과 '파생시장'으로 구분했다.

골프산업의 핵심 상품인 골프 경기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벤트 대회를 관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거래되는 본원시장은 전체 한국 골프시장 규모의 40.4%인 8조 3556억원이며 본원시장으로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성되는 파생시장은 59.6%인 12조 3134억원으로 집계됐다.

본원 시장 내에서는 필드골프에 직접 참여하는 시장(참여 비이벤트 필드) 거래액이 61.3%인 5조 12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스크린골프에 직접 참여하는 시장(참여 비이벤트 스크린) 거래액이 26.2%인 2조 1865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필드골프 본원시장 규모는 2020년 약 3조 6760억 원에서 2021년 약 4조 6687억 원, 2022년 약 5조 12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각각 전년 대비 16%, 27% 10%의 성장률을 보이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갔다.

스크린골프 본원시장 규모는 2020년 약 1조 5304억 원에서 2021년 약 1조 8143억 원, 2022년 약 2조 1865억 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6%, 19%, 21% 꾸준히 성장했다. 스크린골프 시장은 성장률 또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서 연구진은 "필드골프와 스크린골프는 대체재나 보완재가 아닌 골프시장 전체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파생시장 규모는 2020년 약 8조 7360억 원에서 2021년 약 11조 1197억 원, 2022년 약 12조 313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2022년 기준 용품시장이 파생시장의 81%인 9조 9365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골프산업백서 2022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의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골프산업 구조와 규모를 집계, 추정 및 분석했으며 2017년 첫 백서 발간 이후 2년 주기 데이터 분석에서 나아가 최초로 총 3년의 연구 결과를 포함해 펴냈다.

총 263쪽 분량으로 구성된 2022 골프백서는 골프산업 전체 구조와 시장별 규모 및 특성, 시사점 등을 여섯 개의 장으로 구분해 기록했다.

필드골프, 스크린골프, 프로 및 아마추어 대회, 용품, 시설, 중계권 등 골프와 관련된 스포츠 산업 전반을 다룬 2022 골프백서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에 따른 골프산업의 변화와 미래 전략에 대해 사전적으로 시사하는 바를 중점으로 다뤘다. 김윤성 기자 yskim@



KLPGA, 외국 선수들에 문 활짝 열었다

정규투어 참가자격 혜택 확대
인터내셔널 퀄리파잉토너먼트
10월 10~13일까지 태국 개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태국 피닉스골드 골프 앤 컨트리클럽에서 외국인 선수들이 참가하는 '인터내셔널 퀄리파잉 토너먼트'를 개최한다.

인터내셔널 퀄리파잉 토너먼트는 만 18세 이상의 해외 국적 소지자 중 해외투어 라이선스 자격이 있거나 5년 이내에 각국 프로투어 활동 경험이 있는 프로 또는 아마추어 선수 만이 참가할 수 있다.

KLPGA 투어에 진출하고 싶은 외국 선수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KLPGA는 2015년부터 인터내셔널 퀄리파잉 토너먼트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참가선수들의 성적에 따라 상금과 함께 KLPGA 투어 참가 자격이 대폭 확대돼 외국 선수들의 참가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1위 우승자에게는 기존 메이저대회 KLPGA 챔피언십 1개 출전권에서 2024년 KLPGA 투어 전 대회를 출전할 수 있는 시드권을 준다.

2위와 3위는 KLPGA 챔피언십 참가 자격을 받는다. 3위까지 받았던 KLPGA 투어 시드순위전 예선 면제 혜택이 2위~8위까지 확대됐다. 시드순위전 예선 면제는 KLPGA 투어에서 상금순위 61위~80위에 들어야 받는 혜택이다.

5위까지 받았던 드림투어 시드권은 2위~10위까지, 6위~10위까지 받은 점프투어 시드권을 11위~20위까지 준다.

올해도 해외투어 2022년도 상금순위 상위 선수(USLPGA 125위, JLPGA 95위, LET 45위, CLPGA 10위까지)에게는 인터내셔널 퀄리파잉 토너먼트 면제 특전을 부여해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예선 출전 기회를 제공한다.

글로벌 투어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KLPGA는 국내투어 진출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외국인 전용 대회를 개최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선수에게 준회원 선발전과 점프투어를 전면 개방했다.

이를 통해 한국 선수와 동일한 단계를 거쳐 처음으로 정규투어까지 입성한 리슈잉(중국)은 신인상 포인트 부문 6위와 비씨카드 한경 레이디스컵에서 공동 6위에 오르는 등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김윤성 기자 yskim@

볼빅, 투어 선수용 골프볼 '콘도르' 출시

화이트카본 신소재로 설계

골프 브랜드 볼빅(대표 홍승석)이 화이트카본 신소재로 설계한 퍼포먼스 우레탄볼 '콘도르(CONDOR.사진)'를 출시했다.

콘도르는 남미 안데스산맥에 사는 커다란 독수리로 골프에서는 버디, 이글, 알바트로스 다음 콘도르로 기준 타수보다 4타 적게 칠때 쓰는 용어다. 파5홀에서 홀인원을 할 때나 쓸 만큼 어려운 기록이다.

골프공 최초로 고급 타이어에 쓰이는 화이트카본 신소재 기술을 적용한 콘도르는 밀도와 응집력이 높아 에너지를 손실 없이 전달하고 고무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

화이트카본으로 제작된 소프트한 코어는 고밀도의 탄성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 임팩트 순간까지 응축된 힘을 모아 한번에 발산하므로 폭발적인 비거리를 보여준다.

맨틀도 레이어 간의 결합력을 강화해 논슬립 기능을 극대화했다. 과거 3년간 화이트카본을 연구한 기술력으로 기존 우레탄볼 대비 더욱 낮은 롱게임 스핀 및 메탈 이온의 결합으로 탄성을 끌어올려 더 빨라진 볼 스피드를 챔가할 수 있다. 커버는 투어 선수용 골프볼에 쓰이는 소프트 캐스팅 우레탄이 감싸고 있어 부드러운 타구감과 안정적인 쇼트게임 퍼포먼스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여기에 딤플이 정교하고 완벽하게 대칭 패턴으로 조합되어 모든 샷에서 일관된 볼 비행을 유지한다.



볼빅이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스포츠과학진흥원에 의뢰해 진행한 시험 결과에 따르면 콘도르는 해외 유명 브랜드의 투어 선수용 볼보다 볼 스피드와 비거리(3.7m)에서 모두 경쟁사의 우레탄 볼을 앞질렀다고 설명했다.

콘도르는 미국USGA 및 영국R&A의 심사를 완료한 투어용 공인볼로 3피스와 듀얼 맨틀 구조인 4피스 콘도르x2 종류다. 김윤성 기자 yskim@